

한국형 엑소시즘 판타지 사극

감우성 × 장동윤 × 박성훈

조선구마사

파력난신의 시대

3월 22일(월) 첫 방송

새 월화 드라마 <조선구마사>(극본: 박계옥, 연출: 신경수)가 3월 22일(월)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조선구마사>는 인간의 욕망을 이용해 조선을 집어삼키려는 악령과 백성을 지키기 위해 이에 맞서는 인간들의 혈투를 그린다. 북방을 순찰하던 이방원(태종)이 인간 위에 군림하려는 기이한 존재와 맞닥뜨린다는 상상력 위에 '엑소시즘'을 가미해 독창적인 세계관을 구축했다. 태종에 의해 철저히 봉인 당한 서역 악령이 욕망으로 꿈틀대는 조선 땅에서 부활해 벌이는 핏빛 전쟁이 숨 막히게 펼쳐질 전망이다.

<녹두꽃>, <육룡이 나르샤> 등 선 굵은 액션 사극에서 탁월한 연출력을 발휘한 신경수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한국형 엑소시즘 판타지 사극의 새 장을 연다. 여기에 감우성, 장동윤, 박성훈을 비롯해 김동준, 정혜성, 서영희, 금새록, 이유비 등 믿고 보는 배우들이 출연해 기대감을 키운다.

감우성은 냉철한 카리스마의 '태종'을 연기한다. 태종은 왕권을 위해 가족과 동료마저 희생시킬 만큼 냉정한 인물이다. 아버지 이성계를 도와 조선 왕조를 세웠다는 자부심이 크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자신이 행한 피의 도륙에 대한 죄의식이 남아있다. 어렵게 세운 나라가 악령으로 인해 혼란에 빠지자, 다시 칼을 잡고 마지막 싸움에 나선다.

장동윤은 조선과 백성을 구하기 위해 핏빛 전쟁에 뛰어드는 충녕대군 역을 맡았다. 조선에 붙어 닳친 위기를 마주하고 책 속의 세상이 아닌 진짜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인물이다.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악령과의 전쟁에 뛰어들며 세상 물정 모르면 왕자에서 진정한 군주로 거듭난다.

박성훈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한 절박함으로 갈등하는 양녕대군으로 분한다. 태종의 첫째 아들이자 왕세자로서 자신감이 넘치지만,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 속에 사는 인물이다. 태종의 마음에 들고자 노력했지만 항상 역부족이었던 그는 무엇 하나 뺏기지 않겠다는 욕망으로 인해 위험에 빠져들고 만다.

서로 다른 신념으로 뜨겁게 부딪힐 세 부자의 대립과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한 이들의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무엇보다 숨은 욕망과 마주한 세 사람의 복잡다단한 내면을 섬세하게 풀어낼 감우성, 장동윤, 박성훈의 열연이 기대를 모은다.

제작진은 "'엑소시즘'을 가미한 독창적 세계관 위에 펼쳐질 악령과의 치열한 혈투가 역동적이고 박진감 넘치게 펼쳐질 것"이라며 기대를 당부했다.



천만 반려 인구를 사로잡는다!



스타와 반려동물의 반전 일상 3월 21일, 28일 공개

UHD특집 예능 2부작 <뷰티언더비스트>(연출: 이지원, 김문현)가 3월 21일(일) 첫 방송된다.

<뷰티언더비스트>는 반려동물과 교감하며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스타들의 반려 생활을 관찰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스타와 동물을 다루는 여타 프로그램과 달리, <뷰티언더비스트>는 서로에게 위로와 힐링을 주는 '교감', '공감' 포인트에 집중한다. 특히 동물이 인간에게, 또 인간이 동물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주는지를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데 초점을 두었다.

'뷰티(미녀) 스타'로는 총무로와 브라운관을 사로잡은 대세 여배우 이초희, 김혜윤, 이영진, 이엘이 출연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을 가감 없이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고양이 집사로 변신한 박수홍이 미우새가 미우새를 키우는 고군분투 '육묘(?)' 스토리로 웃음과 힐링을 전달한다. 여기에 강아지 유치원의 열혈 선생님이 변신한 8년 차 반려인 광희, 그리고 오마이걸 승희까지 합세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유쾌한 일상을 소개한다. 반려동물과 교감하면서 함께 울고 웃는 스타들의 반전 일상이 현실판 '미녀와 야수' 동화가 될 <뷰티언더비스트>는 오는 21일, 28일 2회에 걸쳐 일요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된다.



“연출 의도 반영한 VFX로 드라마 인기에 일조” 자부심

- SBS A&T 제작CG팀 소은석 차장(<펜트하우스> 담당)

자기소개를 해 달라.

1975년생으로 산업공학을 전공했다. CG 포스트 프로덕션과 게임 제작사에서 근무하다 2003년 보도CG팀에 입사했다. 날씨 그래픽 등 3D버추얼스튜디오를 주로 제작했고, 데일리 뉴스에서는 처음으로 증강현실 CG 기법을 <8뉴스> 코너에 도입했다. 2012년 대선방송 및 2014년 전국 지방선거 방송에도 참여했다. 지금은 제작CG팀에서 드라마 VFX(Visual Effect) 슈퍼바이저로 일하고 있다.

제작CG팀 소개를 해 달라.

직원 35명에 파견사원과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약 100여 명이 SBS에서 방송되는 대부분의 드라마, 예능, 교양 프로그램의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책임지고 있다. 목동에는 예능과 교양 프로그램의 CG 제작 부문이, 탄현에는 드라마 VFX 파트가 근무한다.

우리나라의 CG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또 SBS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최근 개봉된 '승리호'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CG 기술은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 최정상권이다. SBS A&T에서는 2009년 드라마 <자영고>부터 VFX를 제작, 진행하고 있는데 감히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tvN <날 녹여주오>, JTBC <화양연화>의 VFX도 SBS A&T에서 했다.

가장 뿌듯한 작품은 무엇인가?

2012년 대선 방송이다. 그래픽 부팀장으로 참여했는데 당시 주류였던 기술 기반 콘텐츠의 선거 정보 영상에서 캐릭터와 스

토리를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 콘텐츠로 전환하여 호평받았다. SBS 선거방송 브랜드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일조한 것 같아 매우 뿌듯했다.

드라마에서는 단순 보정 작업보다 CG를 이용해야만 연출할 수 있는 장면들을 직접 구성하고 제작했을 때 기쁘다. <수상한 파트너>에서 여주가 남주를 기다리는 시퀀스를 사계절이 바뀌는 VFX로 아름답게 표현했을 때, <기름진 멜로>에서 남주가 여주에게 첫눈에 반하는 감정을 공간이 바뀌는 VFX로 전달했을 때, <황후의 품격>에서 황제와 경호원의 결투 장면을 웹툰으로 표현했을 때 등 연출자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어 화제가 되면 더욱 기쁘다. <펜트하우스> 시즌 1에서는 등장인물들의 관계와 스토리를 함축적으로 설명한 석상을 이용한 타이틀 시퀀스, CG가 아니고서는 표현이 불가능했던 100층에서 추락하는 민철아 시퀀스, 김병현의 투구를 3D CG로 마구로 형상화한 야구장 장면 등이 기억에 남는다.

<펜트하우스>를 보면 어디까지가 CG이고 어디까지가 실제인지 헷갈린다. 어떻게 작업했나?

CG로 제작된 것을 아무도 몰라보면 성공한 거다. 예를 들어 <펜트하우스> 시즌 2 1회 엔딩부분의 헬리콥터는 CG를 이용해 보다 고급스러운 헬리콥터로 교체했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드라마에서 CG가 인지되어 돋보일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 CG가 돋보일 수 있는 부분은 주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창조할 때인데, <펜트하우스>에서 헤라펠리스 같은 것이다. 우선 헤라펠리스의 위치를 부의 중심인 강남의 한복판, 삼성동 현대자동차 부지로 정했다. 드라마에서 헤라펠리스의 입구



로 사용되는 장소는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였는데 이 건물을 헤라펠리스의 하단 부분으로 설정했고, 이를 베이스로 100층의 초고층 건물의 콘셉트를 기획했다. 흔히 볼 수 없는 건물이었으면 좋겠다는 감독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전적인 건축 양식을 택했다. 1900년대 초 미국 고층 건물의 고딕 리바이벌 양식과 아르데코 양식으로 전체적인 건물의 형태를 디자인했고, 건물의 하부 디테일은 화려한 유럽 교회의 로마네스크 양식을 기반으로 했다. 또 헤라 여신상을 헤라펠리스의 상징물로 세워 신화적인 의미를 담고, 상부에는 엄청난 크기의 금으로 된 남자 석상을 사방으로 세워 펜트하우스의 주인이 세상을 지배하는 모습을 표현하려 했다. 작업은 실제 건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로 창문 하나, 기둥 하나 일일이 제작한다. 이런 디테일들이 쌓여 비로소 실제 같은 형태를 보여준다. 드라마의 콘셉트를 반영한 CG는 드라마가 추구하고 표현하려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일조한다.

끝으로 한마디

요즘 판타지와 SF 장르가 가미된 드라마 제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장르적 확장은 VFX CG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하다. 곧 방송될 <조선구마사>(담당: 이준석 팀장), <홍천기>(담당: 이민재)에도 우리 팀의 많은 땀이 서려 있다. 다양한 드라마에서 더욱 좋은 VFX CG를 통해 새로운 영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러브FM <간미연의 러브 나인>,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신설

러브FM의 밤 시간대가 강화됐다.

2월 22일(월)부터 매일 저녁 8시 5분부터 9시까지 방송되는 <정철진의 목돈연구소>는 최근 주식이나 부동산 열풍에 기초적인 지식이나 투자 판단의 근거 없이 뛰어난 '주린이'나 '부린이'를 위한 방송이다.

시청취자들에게 돈을 모으는 방법부터 그 돈을 굴려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투자처, 궁극적으로는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재무 설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에 다양한 수단(가사, 영화, 여행, 그림)을 통해서 돈의 본질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등 '돈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코너 구성은 주린이들과 전문가들이 한 팀이 되어 ETF 수익률 게임을 하는 '주머니쇼(주린이들의 머니쇼)', 유동원 유안타증권 글로벌 투자 본부장과 가수 스텔라장이 유망 ETF들에 대해 알아보는 '슬기로운 투자 생활', 돈을 모으는 습관부터 목돈을 만드는 방법까지 알아보는 '아돈케어(金錢 Care)', 노래가사에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이고 머니?', 영화 속에서 경제이론을 알아보는 '시네마노믹스', 주식이나 부동산이 아닌 적은 돈으로 투자할 대상을 알아보는 '나 혼자 번다', '투투즐(투자 투자는 즐거워)' 등이 있다.

김영우 PD(라디오콘텐츠전략팀장)는 "103.5 MHz뿐만 아니라 고릴라 앱이나 유튜브를 통

해서 비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 많은 시청취를 바란다"고 말했다.

베이비복스 출신 가수 간미연이 진행하는 <간미연의 러브 나인>은 달콤한 음악과 이야기로 도시 남녀의 저녁 시간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1990~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음악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로 30~40대의 레트로 감성을 자극한다.

'럽D'(<러브 나인> DJ) 간미연은 조곤조곤한 말투로 밤 9시부터 10시까지 청취자들에게 편안함과 휴식을 선사하고 있다. 간미연은 "타사에서 라디오를 1년 정도 진행했는데 파업으로 인해 제대로 하지 못한 아쉬움이 컸다. <러브 나인>을 통해 청취자들과 저 자신에게 제대로 힐링을 선사하고 싶다"고 밝혔다.

<러브 나인>에는 간미연의 남편이자 뮤지컬 배우인 황바울이 출연하여 남녀의 사랑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찔한 러브라인' (화), 언제 들어도 행복한 '라떼'의 추억과 그 시절 음악을 소개해주는 '라떼뮤직' (수), 방송인 박슬기가 '나를 스트레스받게 한 사람들'에 관한 사연을 받는 '슬기로운 언니들' (금) 등 다양한 요일 코너가 준비돼 있다.

변정원 PD는 "30~40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음악으로 채웠는데 모든 연령층이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 학생부터 주부까지 연령대가 전보다 더 다양해졌다"고 말했다.



새롭게 태어난 <한밤>, 이제 유튜브에서 만난다

2004년 <한밤의 TV연예>부터 작년 8월 종영된 <본격 연예 한밤>까지, 16년 동안 SBS를 대표하여 연예계 소식을 전했던 <한밤>이 디지털 콘텐츠로 돌아왔다.

교양D스튜디오에서 제작하는 <한밤> 채널은 <본격 연예 한밤>의 큐레이터였던 유재필이 진행하며, 작년 11월 6일 처음 유튜브에 업로드되었다. 디지털에 적합한 아이돌 중심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한다.

'휴덕방지원위원회'는 좋아하는 스타들의 모습과 근황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철저한 팬의 시선으로 제작된

다. 그동안 SF9, 여자친구, 펜타곤, 적재, 이남치, STACY, (여자)아이들, MCND, CIX, 골든차일드 등 수많은 아이돌 그룹이 이곳을 통해 근황을 전했다.

최근엔 개그맨 홍현희와 함께하는 '고기서 고기' 콘텐츠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스타들이 홍현희가 구워주는 한우고기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콘셉트로, 첫 회에 출연한 에이티즈는 약 1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팬들은 "우리 아이돌 좋은 것 먹여줘서 감사하다"라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K-pop, K-drama 등을 영어로 소개해주는 'COLLECTION K-WAVE'는 언어 천재 김주우 아나운서가 진행한다. 제작진은 이를 전문적인 코너로 브랜드화하여 <한밤>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로 나아가는 신호탄으로 삼을 계획이다.

또한 <한밤>에서는 그동안 TV에서 공개하지 못했던 미공개 영상 원본에 셀럽들의 영상과 히스토리를 첨가한 '한밤의 인벤토리웨이(InventorY)'를 기획하고 있다.

한편, <한밤>은 지난 연말 <2020 SBS가요대전>에서 전체 포토월 행사를 진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교양D스튜디오 김원태 PD는 "기술적인 지원 및 콘텐츠 제작에 도움을 준 글로벌콘텐츠Biz팀, 스튜디오S, 미디어기술연구소 그리고 콘텐츠프로모션팀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원태 차장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어려움이 있지만, 과거 <한밤>을 기억하는 팬들과 아티스트들이 많이 힘을 얻고 있다. 많은 변화를 통해 다시 찾아온 SBS 디지털 스튜디오 <한밤>에 사우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밤>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업로드된다.





신입사원 5명 입사... 새로운 활력 기대

SBS M&C는 3월 2일(화), 2021년도 신입사원 5명을 선발했다. 이번 채용은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만전을 기했다. 먼저 온라인 인·적성 검사, 단위면접당 수용 인원을 고려한 면접 스케줄 등 지원자의 대면 상황을 최소화했다. 면접 전형에서는 개별 가림막, 상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성을 높였고 지원자 한 명 한 명에 집중하여 평가했다. 그 결과 120:1이라는 높은 경쟁률 속에서 SBS M&C에 꼭 필요한 인재 5명을 선발할 수 있었다.

신입사원들은 한 달간의 인턴십 과정 중에 판매기획/광고 영업/IMC 등 현업부서로부터 산업, 직무, 과업에 대한 교육을 받고 과제를 수행했다. 신입사원들은 “주차별 테스트와 발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힘들긴 했지만, 그만큼 빠르게 SBS M&C를 이해하고 실무에 투입될 기초 체력을 다질 수 있었다”며 인턴십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5개월의 수습 기간에는 S-OJT를 통해서 더욱 체계적인 실무교육을 받고 현업부서에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SBS M&C는 3월 5일(금), ZOOM을 활용한 전사 비대면 교육 시간에 신입사원 자기소개 및 환영식을 진행했다. 신입사원들은 선배 직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향후

각오와 포부를 다졌으며, 선배 직원들도 신입사원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신입사원들이 불어넣을 새로운 활력이 기대된다.



<세기의 대결! AI vs 인간> 이달의 PD상



김민지, 남상문

SBS 신년특집 버라이어티쇼 <세기의 대결! AI vs 인간> (연출: 남상문·김민지, 작가: 조정운)이 제251회 이달의 PD상을 받았다. ‘인간 최고수와 AI가 대결한다’는 콘셉트의 이 프로그램은 AI가 김광석의 목소리로 김범수의 ‘보고 싶다’를 부르고, 박세리와 홀인원 대결을 펼치는 등 참신한 볼거리를 선보였다. 심사위원회는 “포맷이 신선하고 흥미로웠다. AI의 눈부신 발전을 보여주고 인류가 기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감수성을 어떻게 키워가야 하는지 ‘공존’의 방향성을 모색했다”고 평가했다.

‘월성 원전 폐쇄 의혹’ 이달의 기자상

끝까지 판다 팀의 ‘월성 원전 폐쇄 의혹’ (박상진, 권지윤, 김도균, 김관진, 소환욱) 보도가 제365회(2021년 1월)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끝까지 판다 팀은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의 공소장을 입수해, 원전 폐쇄 결정 전 청와대에 사전 보고한 문건과 탈 원전 반대 시민단체 동향 파악 문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 등이 삭제 자료에 포함됐음을 알렸다. 심사위원들은 “SBS의 월성 원전 보도는 월성 원전 보도의 최종본”이라고 선정의 이유를 밝혔다.



소환욱, 김도균, 배문산(A&T), 김관진, 박상진

<펜트하우스> 이모티콘 출시



<펜트하우스> 이모티콘이 출시됐다. 3월 5일 공개된 <펜트하우스>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주연배우 9인의 시즌 1 명장면과 명대사가 어우러진 24종의 이모티콘으로 구성됐다. 주단태(엄기준 분)의 ‘벌써 떨어는군’부터 심수련(이

지아 분)의 ‘너잖아?’, 천서진(김소연 분)의 ‘광기 피아노’, 그리고 오윤희(유진 분)의 ‘잘 부탁해’ 이모티콘까지 다양한 이미지가 담겨 있다.

임창은, 변희석, 유명미 안식년

재무팀 임창은 부국장, ERP팀 변희석 부장, 아나운서팀 유명미 부장이 4월에 안식년을 맞이한다.



임창은 부국장

임창은 부국장은 1991년 경리부 입사 후 자금 조달과 운용, 회계 처리 절차 개선 및 SBS 코스닥 상장을 완수하며 개국 초기, 회사의 자본 조달과 자본 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SBS 인터넷 내셔널 파견근무 시에는 핵심 사업지역을 북미지역뿐만 아니라 중남미 지역으로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2010~2020년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실무경험과 넓은 안목으로 회계 및 금융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했다. 특히 두 번의 국제청 세무조사에 신중하고 정밀하게 대처하여 안정적 회사 운영에 크게 이바지했다.



변희석 부장

변희석 부장은 SBS 개국 때부터 IT 시스템 전문가로 근무를 시작하여 30년간 SBS 정보시스템의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헌신하였다. 초창기 SBS IT 시스템 구축부터 시작하여 선거방송 시스템, 뉴스 디지털 시스템 그리고 ERP 시스템 구축에 이르는 수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IT 시스템 구축의 표준을 정립함과 더불어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ERP팀의 팀장을 역임하며 WISE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IT 환경에 맞추어 SBS IT 정보시스템이 발전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유명미 부장

유명미 부장은 창사와 함께 아나운서팀에 입사, 각종 교양과 라디오, 뉴스 프로그램에서 활약했다. 18년간 진행한 뉴스로 최장수 여성 앵커라는 타이틀이 붙었으며 2018 아나운서 대상 시상식에서 시니어 세대를 위한 SBS 러브FM <유명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을 25년간 진행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받았다.